



Built to Lead

즉시 배포용: 2016년 4월 12일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CUOMO 주지사, 뉴욕주민들이 세금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
브롱스와 퀸즈에 이동 지휘 센터를 배치하다

재무국(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), 연소득 **62,000**달러 이하 납세자들이 **4월 18일** 마감시한 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다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해당되는 납세자들이 오는 **4월 18일** 마감시한 전에 세금 신고서 제출을 무료로 돕기 위해 브롱스와 퀸즈에 이동 지휘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. 이 센터에는 **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** 조세부(Tax Department) 직원들이 나와서 연소득**62,000**달러인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를 도와줄 것입니다.

“이 이동 지휘센터는 올해 뉴욕주민들이 세금 신고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졌습니다”라고 **Cuomo** 지사가 말했습니다. “브롱스와 퀸즈에 거주하는 **130만**여명의 납세자들은 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. 이에 해당하는 모든 뉴욕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.”

“이동 지휘센터를 마련하고 무료 신고 방식을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커뮤니티에 유용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**Cuomo** 주지사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”라고 **뉴욕주 재무국의 Jerry Boone**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.

스페인어와 아이티 크레올 언어를 하는 일부 주민을 포함해 뉴욕주 조세부 자원봉사자들은 온라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프로세스를 통해서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이 밖에도, 뱅갈어와 우르두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자메이카에 있는 **Queens Library (Central)**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.

라이브러리와 기타 커뮤니티 기관들과 제휴하고 있는 조세부도 다섯 보로와 롱아일랜드의 여러 곳을 포함해 **85개 장소**에서 세금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이동지휘센터 일정

- 4월 13일 수요일, 오전 11시30분 - 오후 6시30분, 브롱스 소재 69 E. 167번가, Ariva 및 Spring Bank가 지원 참여.

- 4월 14일 목요일과 4월 15일 금요일, 오전 10시 - 오후 5시, 브롱스 소재 2751 Grand Concourse, Ariva, University Neighborhood Housing Program, Fordham Bedford Housing Corp가 지원 참여.
- 4월 16일 토요일, 오전 10시 - 오후 5시, 자메이카 89-11 Merrick Blvd. 소재 Queens Library (Central)가 지원 참여.

뉴욕시의 기타 장소의 운영시간은 조세부 웹사이트 tax.ny.gov/fsa 또는 311에 전화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.

납세자들은 tax.ny.gov에 마련된 사용이 용이한 동일한 무료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어떤 컴퓨터,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소프트웨어는 납세자들은 본인에게 자격 있는 모든 세액 공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[근로소득지원세제\(Earned Income Tax Credits\)](#)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 8,427달러까지 합산하여 자격이 되는 맞벌이 가정이 공과금을 내거나, 물품을 구입하거나, 또는 비상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재정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